

코로나 의료진 69% “접종후 불안감 감소”

93명 대상 조사...‘가족 전파’ 불안 감소 63.4% 환자 1인당 전신 보호복 2020년 33.6개→0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줄고 전신보호복 사용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대한의학회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이은영 교수와 서울대

의대, 순천향대 공동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에 노출된 의료진의 불안 수준과 개인보호장비 사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형태로 실시됐으며, 자가진단 방식을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과 후의 불안 수준을 측정했다.

조사에 참여한 의료진 93명 중 64명(68.8%)는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고, 59명(63.4%)은 가족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줄었다고 답했다.

개인보호장비 사용량도 지난해 코

로나19 백신 도입 이후 감소했다. 월별 환자 1인당 전신 보호복 사용량은 2020년 33.6개에 달한 적도 있었지만 지난해 5월에는 0개로 급감했다.

전신 보호복보다 고글이나 안면보호대, 가운 사용은 증가했다. 고글과 안면보호대는 지난해 1월 환자 1인당 19.6개에서 같은 해 5월 29.9개로 증가했다.

가운은 같은 기간 57.1개에서 62.6개로 늘어났다.

김재환기자



여수경찰, 독거노인 범죄안전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범죄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유관단체인 여수시노인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참여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보성경찰, '안전한 보성만들기' 위한 보성향교 어른신 특강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최근 보성 향교 노인대학에서 어른신들 4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공동체 치안 협력 유공 CCTV 관제요원 감사장 수여

나주경찰서장(총경 김선우)은 지난 20일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센터)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자 검거로 공동체 치안 협력에 기여한 관제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119생활안전순찰대, 사회적취약계층 대상 유관기관 협업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 119생활안전 순찰대는 불철 기간을 맞아 시청 및 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생활 속 화재 위험 요소 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성기자



광주동부소방,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방문지도

광주 동부소방서는 불철 공사현장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45개소에는 공사장 화재안전 안내문 발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남부소방,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화재예방컨설팅·소화기 기증'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불철 산악사고를 대비해 분석산, 제석산 일대에서 산악사고 구조훈련 및 안전 캠페인을 1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발언하는 문정현 신부

문정현 신부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2022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비 경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교수 부모찬스’ 논문 4년간 96건 적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조국 딸 등 5명 입학취소

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간 96건 적발됐다.

대입에 부모찬스 논문을 ‘스펙’으로 활용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 5명에 대해 대학의 입학 취소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부모찬스 논문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교생 이하 연령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프로시딩) 등 총 1033건이다.

총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실제 기여가 없거나 부실함

에도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이었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등 교원은 69명,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대학입시 지원 현황을 살핀 결과 그 중 10명이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명만 입학이 취소됐다. 이중 1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학적이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현재

당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1명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46명 중 9명은 대학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가 파괴되는 등 대입에 논문이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연루된 교수 등 교원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서 징계가 이뤄졌으며, 퇴직자 2명을 제외한 67명 중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이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이다.

다른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됐다.

해당 연구물이 국고 등으로 이뤄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1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선욱기자



“1인 가구, 가족 있는 가구보다 골초 위험 1.5배 높다” 연구결과

성인 흡연자 8천명 분석

1인 가구는 가족이 있는 가구보다 골초(고도 흡연)가 될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찍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거나 배우자가 있는 남성에서 고도 흡연 위험이 더 컸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근미 교수팀이 2010~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중 흡연자 7984명을 가구원 수별로 나누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현재 흡연 성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인 가구에서 14.7개비, 다인 가구에서 14.1개비였다. 하루에 담배를 25개비 이상 피우는 고도 흡연율도 1인 가구(9.4%)가 다인 가구(7.2%)보다 높았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고도 흡연 위험이 1.5배 높았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가족이나 주변인의 (만류·궤고 등) 사회적 지지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1인 가구는 동거인의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고,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동거인이 없어 흡연율과 흡연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감 경향이 많다는 것도 고도 흡연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는 집안일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모두 40대, 남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른 흡연 시작(19세 미만), 긴 흡연 기간이 고도 흡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다인 가구에선 30~60대, 사무직, 규칙적 운동, 비만, 우울, 스트레스가 있으면 고도 흡연 위험이 더 컸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세울 때 가구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구 형태는 2000년 4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1%로 비중이 가장 컸지만 2020년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40년 전체 가구의 약 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불충분한 음식 섭취, 신체활동 감소, 알코올 남용, 흡연량 증가 등 건강 위해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절염·녹내장·백내장 위험도 더 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서선욱기자

‘2명 사상’ 목포 주택 화재...경찰, 방화에 ‘무게’

안방서 휘발유 냄새나는 1.8L 생수통 발견돼...오늘 감식 예정

목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21분께 목포시 용당동 한 1층 규모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또래 B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실제 85㎡ 중

50㎡와 가재 도구 등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381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독 주택 안방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1.8L 생수통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하며, 오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

사할 방침이다. 또 방화 용의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격자 등을 수소문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생수통을 들고 집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